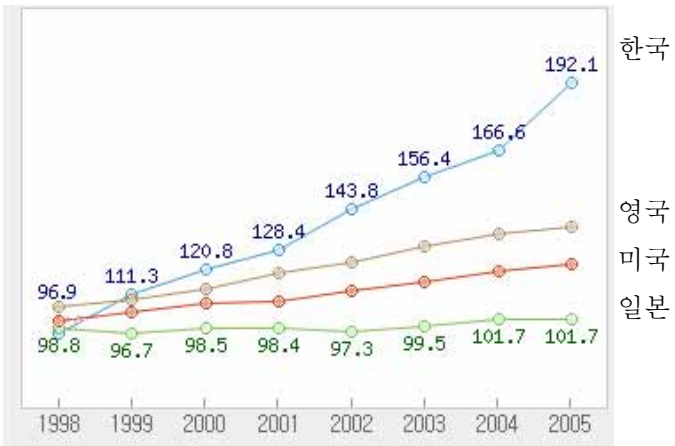
문항 1

다음의 자료들을 참고하여 외국인 증가의 원인과 현황을 분석하고, 외국인 증가가 우리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기술하시오.

<가> OECD 주요국 제조업 임금지수



㈜ 임금지수: 노동자의 임금수준의 변동을 나타내는 지수(1997=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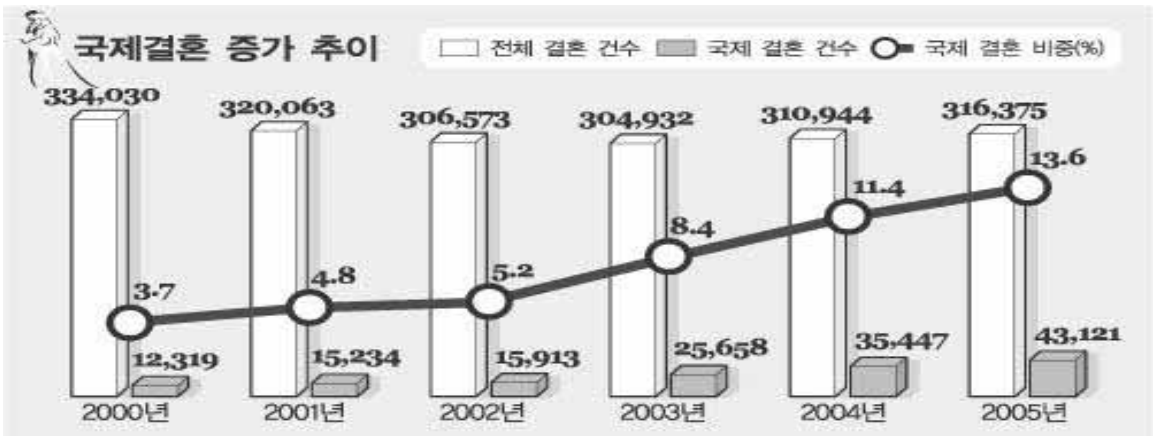
<나> OECD 주요국의 인구 고령화 속도

	도달연도			소요년수	
	7%	14%	20%	7% → 14%	14% → 20%
프랑스	1864	1979	2018	115	39
독일	1932	1972	2009	40	37
영국	1929	1976	2026	47	50
이탈리아	1927	1988	2006	61	18
미국	1942	2015	2036	73	21
한국	2000	2018	2026	18	8

<다> 우리나라 인구 중 외국인 비율의 추이

년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외국인수	244,172	267,630	287,923	437,014	469,183	485,477	623,490
비율(%)	0.5	0.6	0.6	0.9	1.0	1.0	1.2

<라> 국제결혼 추이



<마> 체류 외국인 현황

구분	명	비율(%)
외국국적 동포	267,436	29.4
외국인 근로자	308,811	33.9
결혼이민자(국적취득 전 외국인)	87,252	9.6
외국인 유학생	28,062	3.1
외국인 투자자	6,550	0.7
불법체류 외국인	211,988	23.3

문항 2

다음의 제시문들을 참고하여 돈과 행복과의 관계를 기술하고, 한국인의 행복지수가 낮은 이유 및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에 대한 본인의 견해를 제시하시오.

<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 현재까지 영국인과 일본인이 느끼는 삶의 만족은 거의 변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들의 실제소득은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독일, 프랑스, 그리고 거의 모든 서구 산업국가에서도 비슷한 그림이 그려지고 있다. 엄청난 소득의 증가와 생활수준의 향상은 사람들을 더 만족하게 만들지 못했다. … 그렇다면 돈이 사람들의 성격을 파괴한다거나 아니면 덜 행복하도록 만든다는 말일까? 절대 그렇지 않다. 돈은 분명하게 더 많은 만족을 보장한다. … 일본이나 독일과 같은 부유한 나라의 주민들은 평균적으로 시에라 레온이나 미얀마의 주민들보다 훨씬 더 만족스런 삶을 살아간다. 이들 주민들에게는 깨끗한 식수나 교육, 의사는 독일인이 달나라 여행을 생각하는 것만큼이나 이루기 힘든 일이다. 생존에 필수적인 요소들이 만족되지 않는 한 아무도 '가난하지만 행복하다'고 말할 수 없다. 하루에 2유로 50센트도 안되는 돈으로 목숨을 지켜야 하는 인류의 절반에게는 돈을 갖는 것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된다. 돈은 그들에게 순수한 행복을 의미할 수 있다.

<나>

최근 세계 경제는 보기 드문 호황을 누리고 있다. 2000년 이래 연평균 성장률이 3.2%에 달한다. 건실한 성장,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요즘 일부에선 그 이상을 요구한다. 자본주의가 인간에게 성장과 함께 행복도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경제학이 경제성장이나 돈 이상의 무언가를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은 요즘 유럽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고 영국 보수당 리더인 데이비드 카메론은 그 대표적 주창자다. 그는 전통적인 국내총생산(GDP) 대신 '총 행복(GWB: General Well-being)'이란 개념을 주장한다. 그의 주장은 경제학과 심리학을 결합한 소위 행복경제학에 근거하고 있다. 행복경제학의 논리는 단순하다. 사람들에게 행복한가, 불행한가 등을 묻고 이에 응답한 결과를 논거로 삼는다. 이에 따르면 부자들은 대체로 가난한 사람보다 더 행복한 걸로 나타난다. 그러나 국가별로 보면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풍요한 국가 국민들의 행복지수가 가난한 국가의 국민들보다 더 낮게 나오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그 주된 이유는 자본주의가 사치품을 필수품으로 변화시키는 속성이 있다는 사실로 설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부자 국가 국민들은 높은 수준의 생활을 유지하면서도 만족도는 낮게 나타난다.

<다>

1995년 미국 코넬대 심리학과 연구팀이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의 감정을 분석한 결과 동메달리스트들의 행복도가 은메달리스트들보다 더 높았다. 은메달리스트는 "한 발짝만 더 나갔어도 금메달이었는데…" 라며 금메달리스트와 자신을 비교하지만 동메달리스트는 "까딱 잘못했으면 메달을 따지 못할 뻔 했다" 며 동메달을 땄다는 사실에 큰 만족감을 느낀다는 것이다.… '프레임'(Frame)은 흔히 창문이나 액자의 틀, 안경테를 의미한다. 이것은 모두 어떤 것을 보는 것과 관련이 있다. 심리학에서 '프레임'은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의 창'을 의미한다. 어떤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 세상을 관조하는 사고방식, 세상에 대한 비유, 사람들에 대한 고정관념 등이 모두 여기에 속한다. … 우리는 프레임을 통해서 채색되고 왜곡된 세상을 경험하고 있다. 일상에서 가장 많이 작용하는 프레임 중 하나는 '자기 프레임'이다. 연극의 주인공이 아닌데도 많은 사람들은 자신에게만 조명이 비친다고 착각하며 필요 이상으로 타인의 시선에 신경 쓴다.

<라>

2006년 영국 신경제학 재단(NEF)이 세계 178개국을 대상으로 행복지수를 조사한 결과 호주 옆의 작은 섬나라 바누아투가 세계에서 가장 행복지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바누아투의 국내총생산은(GDP)은 전 세계 233개 국가 중 207위다. 2위는 콜롬비아, 3위는 코스타리카다. 조사는 삶의 만족도와 평균 수명, 생존에 필요한 면적과 에너지 소비량 등의 환경적인 여건 등을 종합해 산출한 것이다. 이 조사결과에 따르면 한국인의 행복지수는 102위다. 2006년 국제통화기금(IMF)의 '세계경제전망(WEO)'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은 경제 규모에서는 이미 세계 10위에 올랐다. 또 지난 40여 년간 1인당 국민소득은 무려 200배 이상 늘어났다.